

“터놓고 이야기 합시다” 광양시 소통행정 호응

정현복 시장 ‘시정 공감토크’ 주민과 만나 현안 토론 ‘광양 해피데이’ 등 이어 생생한 현장 목소리 청취

민선 6기 광양시가 민·관 협치의 공감·소통행정을 강화하고 있다.

광양시는 지난해부터 ‘광양 해피데이’(Happy day)와 ‘현장행정의 날’을 운영한 데 이어 올해 들어 매일 1회 읍·면·동을 순회하는 ‘시정 공감토크’를 추가해 대면행정을 확대시키며 폭넓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책을 펴고 있다.

시는 지난 11일 광양읍사무소에서 광양읍 이장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시정 공감토크’를 열었다.

‘시정 공감토크’는 정현복 시장과 주민들의 생활 깊숙한 곳까지 알고 있는 이·통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시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수렴해서 이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복안으로 마련됐다.

특히 통상적인 설명회의 틀을 깨고 각 읍·면·동이 직면한 현안에 대해 먼저 주제를 정한 뒤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해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시는 ‘시정 공감토크’를 통해 시정에 대한 행정추진안을 놓고 민·관이 서로 이해하고, 이·통장은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해 대안을 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정현복 광양시장은 지난 11일 광양읍사무소에서 지역 주민과 광양읍 이장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시정 공감토크’를 열고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 수렴을 했다.

하고 있다. 또 최일선 행정을 수행하는 이·통장들의 시정에 대한 참여 기회를 제공해 자연스럽게 각 가정에서 시정방향을 신속히 전달하는 효과도 예상하고 있다.

이날 광양읍 ‘시정 공감토크’에서 이·통장들은 목성지구 개발사업, 세풍산단 개발, LF아울렛 입점 등 대규모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지역여론을 전달했다.

앞으로 ‘시정 공감토크’는 5월 광양읍을 시작으로 ▲6월 중마동 ▲7월 진월면

▲8월 옥룡면 ▲10월 진상면 ▲11월 광영동 ▲12월 옥곡면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부터 매일 마지막 주 화요일에 시장 접견실에서 ‘광양 Happy day’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429명이 시장과 독대해 217건의 애로사항과 건의를 듣고 처리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매월 둘째 주 화요일을 ‘현장행정의 날’로 정해 주민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시정에 반영하고 있다.

정 시장은 그동안 7회에 걸쳐 옥곡 오일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장과 광양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장, 마동 체육공원 등 21곳의 현장을 방문하며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점검했다.

정현복 시장은 “‘대한민국 행복수도’, ‘전남 제1의 경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시정 참여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통장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과 행정의 가교(架橋)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배영재기자 byj@

광양경제청 위상 살릴 신임 청장 ‘관심’

조보훈·권오봉·정병재 3명 응모...26일 면접심사

최근 순천 신대지구 개발비리로 위상이 추락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신임 청장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임 청장은 순천 신대지구 개발과정에서 광양만청 전·현직 공무원과 개발업체 직원이 구속되는 등 어수선한 조직을 추스르고 투자유치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매진해야 할 상황이라 어느때보다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21일 전남도와 광양만청에 따르면 최근 마감한 제5대 광양만청장 공모에 모두 3명이 응모했다.

응모한 사람은 조보훈 전 전남도 정무부지사, 권오봉 전 전남도 경제부지사, 정병재 전남도의회 사무처장으로 저마다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책임지기를 자임하고 있다.

순천출신으로 전남도의회 부의장을 지낸 조보훈 전 부지사는 폭넓은 인맥과

정치력을 갖춰 광양만청과 인근 지자체의 동반 성장을 이끌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이사장 재직시 대규모 투자유치를 이끌어 낸 경험도 장점으로 꼽힌다.

권오봉 전 경제부지사는 기획예산처 사회재정기획단장과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 방위사업청 차장을 역임한 경제통으로 예산확보 등 중앙부처와의 관계 개선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남도와 함께 7인으로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6일 면접심사를 통해 복수로 임용후보자를 선발한후 최종 1명을 신임 청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정병재 사무처장은 전남도 경제과학국장과 해양수산국장, 여수시 부시장 등을 두루 거친 기획통으로 현안을 꼼꼼하게 챙기는 섬세함이 강점이다. 전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 경남도와 함께 7인으로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6일 면접심사를 통해 복수로 임용후보자를 선발한후 최종 1명을 신임 청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개방형 직위인 광양만청장은 지방관리관(1급)으로 3년간 임용되며 근무실적에 따라 5년까지 연임이 가능하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시립도서관 두번째 ‘길 위의 인문학’ 30일·6월 13일

‘석탑으로 만나는 옛 사람들’ 주제

광양 시립도서관은 30일과 6월 13일에 ‘길 위의 인문학’ 두 번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고등학교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석탑으로 만나는 옛 사람들’을 주제로 불교건축의 핵심인 석탑을 통해 선조들의 정신과 문화를 배워보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시립 도서관은 머루사지 석탑과 정림사지 5층 석탑, 중흥산성 3층 석탑, 실상사 백장암 3층 석탑, 화엄사 4사지 3층

석탑 등을 중심으로 백제와 신라시대의 석탑을 찾아 견원과 탐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광양 시립도서관 홈페이지(lib.gwangyang.go.kr)를 통해 사전 접수하면 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교과서에서 배웠던 역사적 내용에 현장에서 들려주는 생생한 이야기가 더해져 살아있는 교육이 될 것”이라며 “고등학교 자녀와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061-797-3862).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광양시 ‘틈새 발전 프로젝트’ 20개 발굴 추진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매실푸드 셰프 선발대회 등

광양시가 민선 6기 공약사업과 역점시책 외에 20개의 ‘틈새 발전 프로젝트’를 발굴해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그동안 각 분야별 전문가나 시 내부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를 시에서 적극 도입해 추진 가능한 사업이나 검토가 필요한 사업 위주로 선정했다.

프로젝트는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에 걸맞는 청소년 시책 ▲지역상권 보호 및 일자리 창출 시책 ▲생활문화적 시책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특히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 ‘초등학교 생존수영 강습추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매실푸드 셰프 선발대회’ 등 눈에 띄는 사업에 포함됐다.

20개 프로젝트는 우선 추진가능한 단기 시책부터 월별 과제로 선정된 후 해당 부서 1차 검토→간부회의 토론→시책발

굴 추진 순으로 진행된다.

간부회의에서 실효성과 타당성, 시의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업방향을 결정된 후 추진하게 된다.

사업별 세부추진 방안은 각 실·과에서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 가능성과 실효성을 분석해 구체적으로 연구·분석한 후 실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향후 타 시·군 사례, 예산확보 방안, 사업도입 기대효과 및 실현 가능성, 시민들이 느끼는 기대효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실행에 옮긴다.

시는 이번엔 선정된 20개 사업 외에도 시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시책들을 수시로 발굴해 시책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중 잉커우시 대표단 광양 방문 교류 증진 논의

중국 라오닝성 잉커우(營口市) 실무 대표단이 경제무역과



항만분야의 교류 증진을 위해 지난 19~20일 광양을 방문했다. <사진>

이번 방문단은 잉커우시 부관지(卜蘭杰) 대외무역 경제협력국장을 단장 등 7명으로 이뤄졌다.

방문단은 광양시, 여수광양항만공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경제무역 분야 교류증진 방안과 광양항~잉커우항간 컨테이너 직항로 조기 개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광양항, 구룡산 전망대 등 광양시의 주요 산업현황과 관광자원을 둘러봤다.

광양시 관계자는 “양 시는 지난 2005

년 10월 국제 우호도시 교류협약을 맺은 이후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오고 있다”며 “이번 잉커우시 대표단 방문을 계기로 앞으로 양 지역의 경제무역과 항만분야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동북지역 제2의 항만도시이자 (遼寧省)의 대표 관문도시 중 하나인 잉커우시는 중국 동북지역 제2의 항만도시이자 라오닝성 대표 관문도시 중 하나이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백운고 학생들 감사편지·카드섹션 훈훈한 스승의 날

광양 백운고등학교(교장 조창영) 학생과 학부모들이 지난 15일 이색적으로 ‘스승의 날’을 축하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학교 학생회와 학부모들은 감사편지와 카드섹션(사진)을 만들어 출근하는 교사들을 맞으며 감사의 뜻을 표현했다.

앞서 교사들은 사소한 선물이나 음식을 받지 않기로 선언한 바 있다.

학생회와 학부모들은 그동안 백운고

발전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이를 통해 구성원들이 모두 만족해 하는 학교 만들기에 적극 앞장서

왔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APT 담보대출

상가·주택 담보대출

감정가대비 70%

회원전용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

* 신용상태등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신만만자유예탁금 - 하루만 맡겨도 **최대 1.7%** 이율 적용

(금액 단계별 차등이율이 적용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옆)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옆)

자산맞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대상

1. 자동차세 3년 이상 신규 신청 고객 - 1장 (7년 이상 2장)
2. 전자금융 (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고객 - 1장
3. 정기예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1천만원 이상)
4.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5. 정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최소 월입금 30만원 이상)
6. 신규 공제 가입 대상 고객
7.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이체 변경 고객 - 1장

행사기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화) 본 금고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시(경쟁입회 하 추첨 예정)

경품안내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4등 - 족욕기(10명)
* 2등 - 의류 스타일러(1명)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3등 - 아이패드(3명)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주의사항

1.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서 제외.
2.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3. 추첨일 당일 행운권 교부 대상 조건 유지자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지시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 상기 이외는 실제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